



운송 Analyst 배기연

02. 6454-4879

kiyeon.bae@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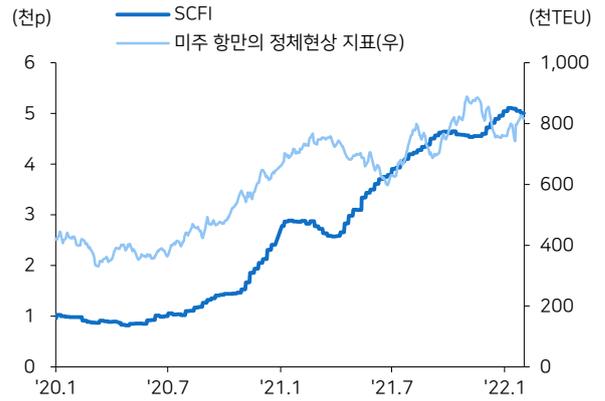
2022. 2. 3 (목)

## 국내의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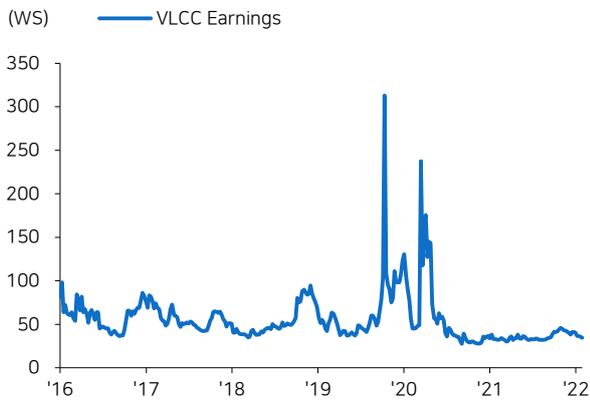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1,419.0p(-21.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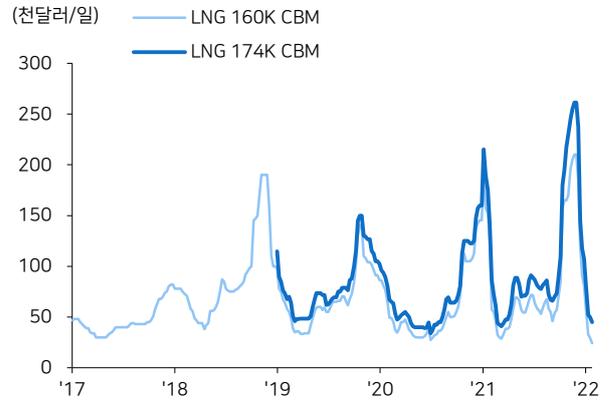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5,010.0(-43.0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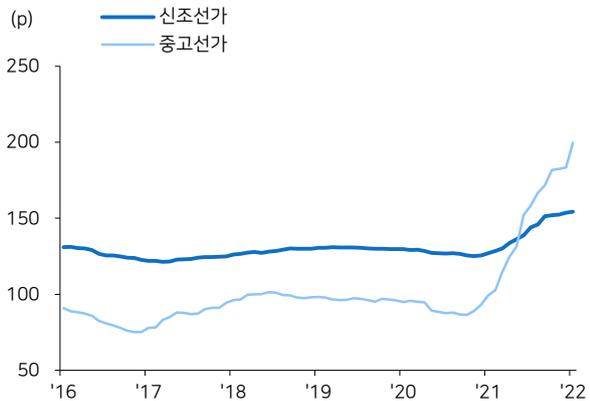
**VLCC Spot Rate** 35.5p(-0.9p WoW)



**LNG Spot 운임** 24.3p(-4.9p WoW)  
45.0p(-4.8p WoW)



**신조선가 및 중고선가** 154.3p(-0.3p WoW)  
200.0p(+8.0p WoW)



**항공화물 처리량** 333.0(+21.8p DoD)  
100.3p(+1.4p DoD)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 철광석 가격 상승세 지속

철강업체와 조선업체간 후판 가격 협상이 시작됨. 철강업체는 하반기 가격 수준을 유지하는 안을 내놓았다고 보도됨. 2021년 철강업체는 후판가격을 상반기 톤당 10만원, 하반기 톤당 40만원 인상하여 현재 톤당 105~115만원 수준임. (데일리안)

### 인도네시아, 2월 내수 공급의무 지킨 업체만 석탄 수출 허용

인도네시아 정부가 내수시장 공급의무를 준수한 업체에 한해 석탄 수출금지령 전면해제를 공지함. DMO 물량을 100% 석탄으로 공급하지 못하더라도 부족 분량만큼 벌금과 기금을 내는 업체 역시 수출할 수 있음. (연합뉴스)

### Qatar says European gas demand "cannot be replaced unilaterally", offers support to bridge shortages

세계 최대 LNG 공급국가인 카타르가 유럽 에너지대란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언급함. 다만, 다른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다른 참여자들의 도움도 필요하다고 덧붙임. 현재 카타르는 수십억원을 들여 설비를 확충하고 있지만, 추가생산까지는 수년이 걸릴 전망이다. (Upstream)

### 미 "중국 1단계 무역합의 제대로 이행 안해"...무역 갈등 재연 우려

미국 무역대표부가 2022년 1월 만료된 미-중 1단계 무역합의를 중국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힘.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에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임. 지난 2020년 미-중 1단계 무역협약에서 중국은 2년에 걸쳐 공산품·에너지·서비스·농산물 미국산 제품을 2017년에 견줘 2천억달러 규모를 추가로 수입하기로 했다고 보도됨. (한겨레)

### Opec pushes forward with production hikes as members struggle to keep up

OPEC+가 3월에도 매달 하루 40만배럴씩 증산하는 지난해 7월 계획을 유지하기로 합의함. 다음 정례회의는 3월 2일로 예정됨. 일부 국가들이 증산속도에 맞추지 못하며 유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보도됨. (Tradewinds)

### 태국, 무격리 입국 재개... 인도네시아도 규제 완화

동남아 대표 관광지 태국과 인도네시아가 입국 규제를 완화함. 태국은 백신접종자의 무격리 입국을 재개, 인도네시아는 격리기간을 7일에서 5일로 줄이고, 발리섬 개방을 확대함. (조선Biz)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증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증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